

공동대표인사말

김 성이 전한국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오오하시 켄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학장
윤 기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도 회를 거듭하면서 내용을 충실히하고, 7 번째가 되는 이번 역시 오늘날에 어울리는 테마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을 이렇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유니벨재단의 이토우 이사오 이사장께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바쁜 중에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서 발표해주신 서울대학의 최성재교수를 비롯하여 서울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이성희원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남범 원장, 그리고 멀리 일본에서 참석해주신 일본사회복지사회의 야마무라 무츠미회장, 추우쿄우대학의 노구치 노리코 교수께 실행위원회로써 진심으로 예를 표합니다.

더불어, 적절한 논의의 장소와 복지연수의 기회를 준비하신 한국사회복지사회의 회장이며 심포지움준비위원장인 조성철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일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소셜워커의 역할에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일은, 중요한 제의이며 그 개최의의는 매우 큽니다.

이곳에서의 논의나 제기가 마침내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공통의 커리큘럼, 공통의 국가시험, 공통의 자격을 향한 기반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이 한일 양국의 복지의 선배로부터 사회복지전공의 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곤란에 처한 복지의 시대에 새로운 빛을 발하는 장소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최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포지움 실행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共同代表ごあいさつ

金 聖 二 前韓国保健福祉家族部長官
大橋 謙策 日本社会事業大学学長
尹 基 社会福祉法人こころの家族理事長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も、回を重ねるごとに内容を充実させ、7回目となる今回もまた、時宜を得たテーマでの会議を開くことができました。

このシンポジウムをここまで盛り上げてくださったユニバーサル財団の伊藤勲理事長にまずもって感謝いたします。

また、お忙しい中をこのシンポジウムのためにご参加いただいた崔聖載・ソウル大学教授はじめ李聖姫・ソウル市立西部老人専門治療センター院長、趙南範・韓国老人人力開発院院長、加えて遠路、日本からご参加いただいた山村睦・日本社会福祉士会会長、野口典子・中京大学教授の皆さまに実行委員会として心よりのお礼を申し上げます。

さらに、適切な論議の場と福祉研修の企画を準備いただいたシンポジウム準備委員長の趙聖鐵・韓国社会福祉士会会長のご苦勞に感謝申し上げます。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日韓両国が直面している緊喫の課題である高齢化社会が生み出す諸問題に対して、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果たす役割に、国民の関心をひきつける重要性を提起するものであり、その開催意義はきわめて大きく、また、現在の状況に的確に対応した会議であります。

ここでの論議や提起が、やがて韓国、中国、日本などによる共通のカリキュラム、共通の国家試験、共通の資格に向けた基盤を築くことになれば、と期待します。

日韓両国の福祉の先達から福祉を学ぶ学生にいたるまで、幅広い論議によって、このシンポジウムが、困難な福祉の時代に新たな光を見いだす場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改めて開催にご尽力いただいた関係者の皆さまに対して、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を代表して感謝申し上げます。